

“0”에서 다시 시작 ... 끈끈한 팀으로 거듭날 것

광주FC, 경남 창원서 동계훈련 진행...2022시즌 위한 구슬땀 이正道 감독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팀을 위한 헌신이 필요해”

추위를 잊은 광주FC가 2022시즌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正道 감독을 앞세워 새 출발한 광주는 지난 3일 경남 창원에 캠프를 차리고 1차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동계훈련의 목표는 ‘기본 다지기’다. 선수단은 기초 체력 및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正道 감독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소통’이다. 지난 시즌 잘 싸우고도 2부 강등이라는 아픔을 겪은 만큼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팀을 위한 헌신”을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이正道 감독은 “강등이라는 결과로 인해 침체된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생각보다 훈련 분위기는 좋다. 승적의 경험을 가진 고참 선수들이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며 “새로운 체제의 광주는 ‘0’에서 다시 시작

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한다. 더 끈끈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날이 지날수록 선수단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함께 호흡을 맞췄던 윤보상, 윤영국, 이한도 등이 팀을 떠났지만 이찬동, 이한샘, 김종우 등 주축 선수들이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김경민, 하승은, 문상운 등 K리그 내 알짜배기 자원도 팀에 가세하면서 ‘팀 이正道’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正道 감독은 “큰 틀에서 어떤 축구를 구사할 것인지에 대해 선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새시즌을 앞두고 긴장과 걱정이 교차하지만, 힘든 훈련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에 더 힘이 난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 기존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 2022시즌을 맞는 선수들의 의지와 각오도 남다르다. 광주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지난해 천정으로 돌아온 ‘최고참’ 이한샘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팀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해 미안함이 크다. 그래서 올 시즌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며 “후배들과 절치부심해 반드시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어느덧 프로 3년차가 된 허훈의 마음도 특별하다. 부상과 부진을 딛고 지난 시즌 프로 데뷔에 성공한 허훈은 올 시즌 팀이 기대하는 특별 자원 중 한 명이다. 허훈은 “지난 시즌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올해는 더 성장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오는 15일까지 창원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한 뒤 17일 벌교로 장소를 옮긴다. 광주는 29일까지 2차 전지훈련을 하면서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창원에서 1차 동계훈련 중인 광주FC의 이正道 감독이 선수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아이슬란드와 평가전 앞둔 벤투호 터키서 첫 훈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0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1월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맨유, 애스턴 빌라 꺾고 FA컵 32강 진출

맥토미니 결승골 1-0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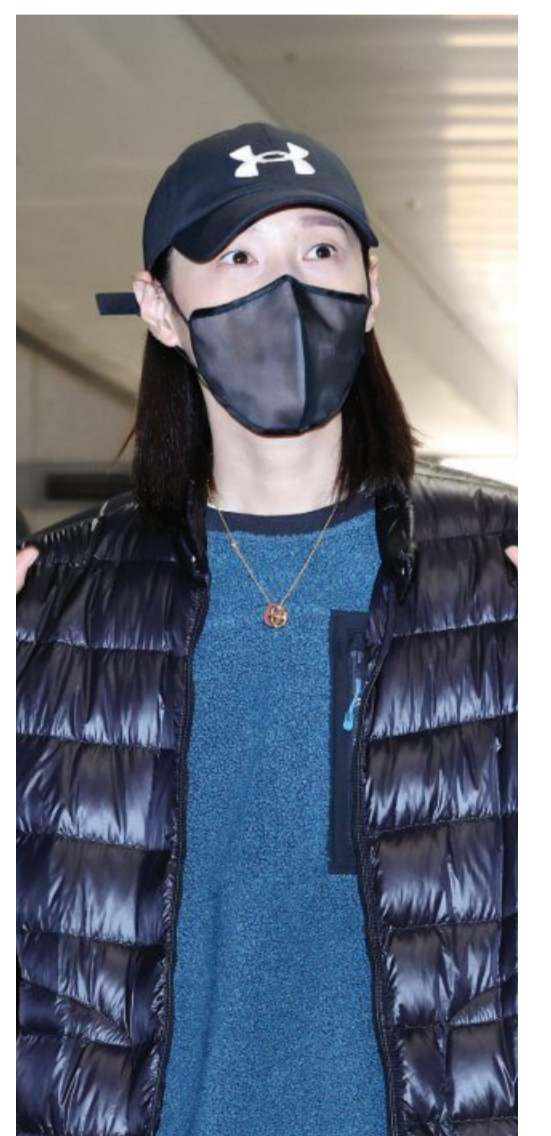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애스턴 빌라를 잡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에 진출했다. 맨유는 11일 열린 애스턴 빌라와 2021-2022 FA컵 3라운드(64강)에서 스콧 맥토미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이 대회에서 12차례 우승을 차지한 맨유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32강전에서 챔피언십(2부) 소속 미들즈브러와 맞붙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미한 근육 문제로 결장했지만, 맨유는 경기 시작 8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다. 프레드가 뒤에서 울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맥토미니가 헤딩으로 받아 넣었다. 애스턴 빌라가 반격에 나섰으나 쉽게 골로 연결

되지는 않았다. 전반 19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찬 존 맥킨의 왼발 슈팅이 맨유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의 선방에 막혔다. 10분 뒤에는 맨유의 수비 실수로 공을 잡은 올리 왓킨스가 골 지역으로 질주하며 시도한 슈팅이 골대 상단을 강타했다. 애스턴 빌라는 후반에도 공세를 이어갔지만 두 차례의 오프사이드가 발목을 잡았다. 후반 5분 프리킥 상황에서 데니 잉스의 득점이 나왔으나,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다. 9분 뒤 왓킨스가 문전에서 밀어 넣은 골도 오프사이드로 무산되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 애스턴 빌라의 감독으로 올드 트래퍼드를 찾은 스티븐 제라드 감독은 64강에서 FA컵을 마무리하게 됐다. /연합뉴스

김연경 귀국...“휴식하며 거취 고민”

중국리그 상하이 일정 마쳐

김연경(33·중국 상하이)이 두 달여의 짧은 중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연경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당분간 국내에서 휴식하며 거취를 고민할 예정이다. 11월 27일 개막한 2021-2022 중국여자배구 슈퍼리그에서 상하이는 3위를 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팀의 마지막 경기였던 4일 라오닝과의 3위 결정 2차전에서 20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세트 스코어 3-0(25-19 25-17 25-14) 승리를 이끌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한 김연경은 휴식을 취하고 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여자배구 슈퍼리그는 이번 시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광둥성 장먼시에 모여 경기하는 ‘버블 형태’로 치렀다. 김연경도 경기장과 숙소만 오가는 ‘격리’에 가까운 상태로 지냈다. 외국인 선수를 한 명만 내보내는 새로운 규정에 출전할 수 있는 경기가 줄었지만, 김연경은 세트당 득점 2위(5.56점), 리시브 1위(성공률 75%)에 이르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김연경과 상하이의 계약은 곧 종료한다. 이제 김연경의 거취에 세계 여자배구의 시선이 쏠린다. 김연경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개다. 충분한 회복을 원한다면 이번 겨울은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두고 2022-2023시즌에 뿔 팀을 알아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미국 혹은 유럽 진출이다. 3월에 개막해 두 달 동안 경기하는 미국프로배구는 ‘홍행’을 위해 김연경 영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을 한창 진행 중인 유럽리그 진출도 가능하다. 한국프로배구 V리그는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 일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한국 여자배구 강판 김연경이 중국여자배구 슈퍼리그를 마친 뒤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프로농구 KB ‘독주시대’

20경기서 19승...남은 10경기 전승 뎀 신기록

여자프로농구 정규 KB가 개막 후 20경기에서 19승을 거두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며 정규리그 1위를 조기에 확정할 태세다. KB는 9일 열린 아산 우리은행과 경기에서 79-78로 승리했다. 19승 1패가 된 KB는 2위 인천 신한은행(13승 7패)과 격차를 6경기로 벌렸다. 이로써 KB는 남은 10경기에서 4승만 더하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다. 개막 후 9연승을 내달리다 우리은행에 일격을 당했지만 다시 이후 10연승을 이어가며 다른 팀들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전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의 20승 1패가 언론의 스포츠 뉴스에 주요 소식으로 다뤄지는 데 비해 KB의 19승 1패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여자배구가 지난해 도쿄올림픽 4강 진출 등으로 인기가 크게 높아지기도 했고, 여자배구 현대건설이 지난 시즌 최하위에서 이번 시즌 20승 1패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반면 KB는 최근 몇 년간 여자농구에서 ‘절대 1강’으로 군림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또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20승 1패의 성적으로 역대 최소 경기 20승 기록을 세웠지만 KB는 다음 경기에서 이겨 20승 1패가 되더라도 역대 타이 기록이 된다. 2016-2017시즌 우리은행이 20승 1패를 달성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KB는 이번 시즌 여자프로농구 사상 정규리그 최고 승률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문 기록은 역시 2016-2017시즌 우리은행이 세운 94.3%(33승 2패)다. KB가 이 기록을 뛰어넘으려면 남은 10경기에서 전승을 거둬야 한다. 1패라도 하면 28승 2패로 시즌을 마쳐 승률 93.3%가 된다. KB가 이달 중 남은 5경기에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면 3월 경기에는 전력투구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리그 최고 승률에 도전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KB스타즈 박지수

2021-2022시즌에 뿔 수 없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에는 V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김연경은 V리그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다. 2022-2023시즌 V리그에서 뛰려면 흥국생명과 계약해야 한다. /연합뉴스